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복잡하고 어지러운 공단을 벗어나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도시인들은 이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갖게 되었고 자연과 만나기 위해 대기오염으로 찌든 도시를 벗어나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런데 정작 도시인들이 찾아가서 만나는 자연은 쓰레기로 덮혀있는 유흥지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콘도미니엄 난립으로 얼룩진 설악산,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파괴되기 직전의 지리산은 역시 오염과 훼손에 노출되어 있다.

대기오염, 하천과 해양오염, 상수원 질의 저하, 쓰레기 처리문제 등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활동의 부산물이다. 경제성장이라는 가치의 최우선성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성장의 가속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하는 결과를 자아낸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것은 전지구적인 문제로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개발도상국의 열대림 파괴, 생물종다양성의 문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이해관계, 개발과 환경사이의 우선순위 문제 등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심각해진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이 어떤 조건에서 형성되고 그것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운동의 형성

1.1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

유해식품에 의한 피해, 분진에 의한 진폐증, 대기오염에 의한 천식, 수질오염에 의한 중금속 중독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은 장시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크기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미나마타병과 같이 대를 물려 발생하는 공해병도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폐수의 방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우리들 각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비로소 사회문제화되는 환경오염의 결과는 보통 그 잠재성으로 인해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다.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장의 방사성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곧바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기에 환경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일정한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갖추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경의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진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문제 그리고 나라안의 문제와 국제적 문제 사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전지구적인 수준에서의 인식이 필요한 문제이다. 환경문제의 국제화는 환경의식의 국제화를 필요로 한다. 어떤 잠재적인 사회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중간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환경문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인식이다. 환경문제는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고 사회적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될 때, 환경문제는 사회문제로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 속에 살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지식인, 종교인, 교육자 등 사회의 여론 주도층에 의해 환경문제가 문제로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몇몇 사람의 관심을 넘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유발케 하는 문제여야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려면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여야 한다. 다섯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개입을 자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해결은 구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가 정책과 규제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개개인의 의식 속에 사회문제 해결의 긴급성이 자리잡게 될 때 하나의 잠재적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개인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집합적인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할 때 사회운동이 형성되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느 환경문제가 중요한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적인 대응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운동, 전문환경단체의 활동 등 환경운동이 형성되는 것이다.

1.2 환경운동의 형성과정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나라들을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나라들에서 환경운동이 대두된 것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이다. 2차대전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중소비사회 도래라고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산업화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들에 대한 반성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8년 프랑스의 5월 운동 이후 1970년대에 전개된 환경운동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개입의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진 지속적 경제성장과 생산제일주의는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가져와 결국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생존마저 위협하는 전도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넘어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즉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심화가 환경운동의 형성으로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런던의 스모그 참사, 프랑스의 브로따뉴 해안의 유조선 파괴, 드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체르노빌 원전사고, 낙동강 폐놀방류 등 우발적인 환경사건이 환경운동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환경파괴와 오염이라는 산업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야말로 환경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침묵하고 지속적인 문제의식, 그것을 ‘환경의식’ 이라고 한다면, 환경의식의 성장은 환경운동을 발생시키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자나 환경운동가 집단을 넘어 일반시민들 사이의 환경의식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환경의식의 형성과 확산과정에는 중대한 환경사건이 촉발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사건을 계기로 하여 환경운동단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등도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여론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기존의 일반 대중매체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빈도수와 내용이 환경의식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향력 있는 잡지, 신문, 단행본 총서 등 새로운 환경매체의 출현도 환경의 식의 성장과 환경운동의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1.3 환경운동의 발전단계

환경운동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대하지만 아직 환경운동은 출현하지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 단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운동이 일어나는 단계로, 공단주변 등의 환경피해를 심각하게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공해배출업체에 반대하여 집합적인 요구와 방어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그 보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의 상설적인 환경운동단체가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단순한 피해보상 등의 특정 지역주민들의 특수한 환경피해가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관련되는 상수원 보호나 대기오염 감시 등 생활상의 문제나 공단지역 주민들의 공해감시운동 등과 같이 예방적이고 장기적인 운동 목표를 설정하여 상설적인 운동조직체를 결성한다. 네 번째 단계는 전국적인 환경운동조직이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운동가가 아니라 환경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환경운동가가 형성되고 환경운동의 직업화와 환경운동조직 관료제화가 일어난다. 다섯 번째 단계는 환경운동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 즉 환경운동세력의 일부가 녹색당 등의 환경정당을 구성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환경정치운동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1.4 입장에 따른 환경운동의 구분

환경문제가 산업화로부터 나온 부정적 부산물이라고 할 때 환경운동의 수준과 의미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개의 가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세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첫째로 지속적인 성장 속의 환경보전운동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기존의 사회, 정치, 경제체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파악한다. 따라서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성장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체제 내의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환경기술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는 기술지향적 환경문제 해결방식에 높은 친화성을 보인다. 둘째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환경운동이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널리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 입장은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파괴된다면 결코 지속적인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서로 배타적이고 상호호순적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치로 파악하고 있다. 셋째로 개발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환경운동이 있다. 개발이라는 가치보다 환경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하는 이 입장을 생태주의적 입장이라고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도구적 관계로 파악하기 보다는 자연을 하나의 전일적인 생명으로 파악한다. 생태주의 적 입장은 무분별한 개발이 낳는 환경위기가 종국에는 인간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연의 일부인 인간 스스로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환경기술의 개발이 결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며, 기본 사회정치경제체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변혁이 일어나야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급진적인 환경론과 친화성이 있다.

1.5 환경문제의 유형에 따른 환경운동의 형성가능성

사회운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우선 운동의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로 운동의 적대집단이 드러나야 하며, 셋째로는 운동주체와 적대집단 사이에 겨루는 운동의 쟁점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피해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정화 여부에 따라 네 가지 범주의 환경문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환경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소수로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다. 산업재해나 탄광광부의 진폐증, 온산공단 지역 주민들의 온산병 등이 그 예이다. 환경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다. 두 번째 범주는 쓰레기 매립장, 핵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으로 분명한데 가해자는 정부, 과학기술부,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환경부, 한전, 지방자치단체, 타지역 주민 등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범주는 페놀오염 사건과 같이 가해자는 특정기업이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이다. 불특정 피해자를 운동의 주체로 모아내기가 쉽지 않다. 네 번째 범주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불특정 다수 경우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합성세제에 의한 하천의 수질오염 등이다.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 등 국제적인 환경문제도 이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환경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나 모든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것은 환경운동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2. 한국의 환경운동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국적인 환경운동조직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나 기업 정당 등이 환경문제를 처리하려는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준에서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제도 내에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면 사회운동은 형성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셋째, 1987년 이후 민주화과정이 그 동안 억압되었던 환경문제를 여론화 하고, 그 것에 기반하여 환경운동단체가 형성될 수 있는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였다는데 있다. 네 번째 요인은 국민들의 환경운동 참여능력의 신장이다.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던, 교육수준이 높고 개혁적인 신중산층의 민주적 참여능력의 증대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항의 능력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합법적 참여공간이 열리면서 적극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환경운동이 급성장을 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2.1 환경운동의 유형

1) 환경피해지역주민운동

핵발전소, 핵폐기물 처분장,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유치를 둘러 싸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 골프장 건설, 공단조성,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운동이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풀뿌리 환경운동’은 환경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더 높은 차원의 환경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피해보상 요구운동으로 전략할 가능성 사이에 있는데 대부분 후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2) 일상생활 속의 환경운동

도시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환경실천 지침을 만들어 널리 퍼뜨리려는 움직임이다. 1970년대 정부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은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발생을 ‘기본적 공중도덕의 결여’ 라고 보면서 쓰레기 줍기, 담배꽂초 안버리기, 산에서 취사 안하기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90년대 들어서 종이컵 대신 유리컵쓰기, 샴푸 및 세제 안쓰기, 일회용 젓가락 안쓰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어 쓰기,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행위 양식을 일반화시키려는 운동이다.

3) 전문환경운동단체의 환경운동

환경운동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환경운동단체의 운동이 있다. 전국 각지의 지역환경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마산, 창원, 울산, 부산, 광주, 목포, 진주 등에서 지역환경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전국적인 활동을 펴다가 이미 설립된 각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해 오던 환경운동단체와 전국조직을 만들자는 뜻을 합해 1993년 4월 2일 전국적인 환경운동연합으로 재편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단체들은 지역의 자연발생적 환경운동을 지원하면서 환경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압력단체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4) 기존 시민운동단체의 환경운동

YMCA,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YMCA는 9월 결의대회를 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규합하여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후 푸른공동체 가꾸기운동, 환경서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1992년 4월 경제정의 연구소에 환경연구부를 설치하여 활동하다가 11월에는 환경개발센터로 분리시켰다. 환경개발센터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실천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경실련에서 나와 환경정의로 독립하였다.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등의 시민단체는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조미료 안먹기 운동 등 식생활 분야에서 특정 상품의 위해성을 고발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활동 등 녹색소비자운동 전개한다.

5) 환경현황에 대한 연구와 장기적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환경운동연합의 시민환경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사회정책연구소 등 민간연구소와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대학 내의 환경관련 각종 연구소가 있다.

6) 기존의 관변단체들의 환경보전활동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의 관변단체들도 기존의 활동이 비판을 받게 되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들 방식대로 환경보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2.2 환경운동의 역사

한국환경운동의 역사는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산업화가 가속화된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생기기 이전까지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발족 이후부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87년 이후부터 1993년 전국적 조직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이 발족하기 이전까지 시기이다. 네 번째 단계는 1993년 4월 2일 전국환경운동연합의 결성 이후 시기를 말한다.

1) 제1단계(1960-1982): 지역주민운동의 출현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으로 요약되는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의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파괴를 동반하였다. 당시 초등학교 교실의 미술시간에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를 검은 연기가 나는 공장으로 표현하였다. 공해가 공해로 인식되지 않고 국력의 신장으로 표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울산, 포항, 온산, 창원, 마산, 여천, 광양 등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농경지나 어장의 오염피해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운동이 전개되었다. 공단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보상운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났으나 정부는 모든 집합행위를 총화단결을 해치는 위해한 행위로 억압하였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크게 여론화되지 못하였다.

1965년 5월 부산 감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매연 분쟁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사건이다. 울산에서도 1960년대 말부터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반복적으로 거듭되다가 1971년에는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천, 광양지역 주민들은 1972년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환경오염에 관한 자료는 기밀로 처리되었고 환경오염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곧바로 반정부투쟁으로 여겼다. 제1단계 환경운동은 공단지역주민들의 자연발생적 운동이 점차 조직적인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2) 제2단계(1982-1987): 조직적 환경운동의 형성

1982년 5월에 한국최초의 전문환경운동조직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출범하였다. 공해문제연구소는 환경운동의 이념을 모색하면서 피해지역주민들의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연구소는 심화된 환경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로서 1985년 온산공단의 집단괴질을 조사하여 ‘온산병’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문제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 이어 1984년 학생운동 내의 환경문제 소모임 대표들이 참여하는 반공해운동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1986년에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주부회원들을 중심으로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공민협)가 결성되었고, 1987년에는 반공해운동협의회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공청협)로 재편되었다. 이 다시의 조직적 환경운동은 곧바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 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운동 또한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환경운동의 이념도 당시 사회변혁의 틀 속에서 구성되었다. 이 시기는 공단지역을 넘어서 도시지역으로 주민들의 환경운동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1983년 목포의 진로주정공장 설치반대운동, 1985년 아산만 주민의 피해보상운동, 동두천 지역의 상수원 오염 심화에 대한 주민운동, 1985년에서 1986년 사이에 온산병으로 인한 온산주민들의 집단이주운동, 1987년 구로공단 주변의 주민운동, 상보동 연탄공장 주변 주민운동 등이 그 것이다. 이 시기의 환경운동은 온산지역운동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주민운동과 전문환경운동단체의 연대가 형성되고 언론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널리 여론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 제3단계(1987-1992): 환경운동의 확산과 다양화

이 시기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한적이거나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로서 많은 수의 전문환경단체가 생겨나는 시기이다. 정치체계의 억압성이 감소하고 개방성이 증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1988년 9월에 공민협과 공청협이 통합하여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결성되었고 1989년에는 환경과공해연구회가 창립되었다. 또 한 살림운동과 자연의 친구들 등 기존의 환경운동과는 다른 노선의 환경운동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1991년에는 경실련, 서울 YMCA 등 기존의 시민운동조직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에 관심을 갖는 단체 수는 계속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단체의 60% 이상이 1989년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환경운동은 이제 환경문제의 원인진단과 운동목표, 운동방식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주민운동도 크게 팽창하였으며, 사후피해보상요구운동 뿐만 아니라 사전 공해시설입지 반대투쟁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먼저 피해보상운동으로는 김포공항주변 주민들의 항공기소음 피해보상요구운동, 폐놀사태에 대한 대구시민들 피해보상운동 등이 있었으며, 예방적 운동으로는 울산의 이산화티타늄 공장 건설반대운동, 부산 반송동 쓰레기 매립장 반대운동, 골프장 건설반대운동, 군산동양화학TMI공장 건설반대운동, 그리고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운동이 있다. 199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언론사들의 열띤 보도경쟁이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의식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문제는 공단을 중심으로 한 피해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중매체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 지면을 늘리고 내용을 다양화하였다. 언론은 환경관련 정책들을 비공개적으로 입안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여 형성된 지역주민들의 환경운동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운동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환경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녹색평론’을 비롯한 환경관련 전문잡지와 신문들이 창간되어 환경의식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4) 제 4단계(1993-): 전국적 수준의 환경운동의 시작

1990년대에 들어 환경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문제이면서 전국적인 수준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의 환경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1993년 3월 4월 2일 서울의 공해추방운동연합과 부산, 대구, 광주, 마산·창원, 울산, 진주, 목포 지역의 환경운동단체들이 통합하여 환경운동연합으로 개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공해를 추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활동해 오던 여러민간환경단체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각 지역의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한편, 전국적인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결성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한 저항과 반대운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원인분석을 기초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운동으로 환경운동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서해안개발, 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전국적 연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였고, 지리산 양수댐 건설반대운동, 인제군 종합군사훈련장 건설반대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이라는 월간지의 발간과 시민환경대학 강좌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회원배가운동을 벌여 거대한 시민환경조직으로 성장하였다.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3. 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

3.1 환경운동의 성과

환경운동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그것은 일반 시민들의 환경의식 성장에 힘입은 환경운동단체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운동단체의 회원수가 급증하고 환경운동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대중매체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환경단체 존재를 인식하고, 그 것을 지원하게되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일차적으로 환경운동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결정된 리우선언과 의제21,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1992년 5월 경제5단체는 ‘기업인 환경선언’을 통해 “기업활동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고 환경관리체계의 개선, 환경영향의 사전검토, 환경기술개발 등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정부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1980년에 만든 환경청을 1990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같은 해 8월 1일 환경정책기본법을 공포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환경처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운동의 성과는 첫째, 환경파괴의 속도를 늦추는 일에서, 둘째,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것을 거쳐, 셋째, 환경을 지금보다 좋은 상태로 개선시키는 3단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3.2 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

환경운동의 과제는 첫째, 환경운동단체의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1991년 페놀사태 이후 급속하게 고양된 대중의 환경의식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다소간의 보상금으로 해소되고 마는 피해지역주민들의 일회성운동을 어떻게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대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캠페인을 통해 어떻게 자발적인 시민환경운동을 엮어낼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환경운동이 당면한 우선적인 과제이다. 둘째, 전국적인 지역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망을 강화하여 지역수준의 환경문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한 능동적인 맹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과공해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사회정책연구소 등 기존의 연구단체는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민간환경연구소들은 환경의식을 가진 과학기술자운동과의 연대로 연구인원 확충에도 힘을써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5차시.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기존의 연구는 자연과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환경문제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과학자들의 비판적 개입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역 환경운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환경운동의 두 축이 전국적인 환경운동단체의 활동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환경운동이라 할 때 지방자치제의 온전한 실시는 앞으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환경운동의 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환경운동의 올바른 이념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일정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다양한 방식의 환경운동단체들을 출현시켰다. 여섯째,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비추어 환경운동도 국제적인 환경운동단체와 협조와 연대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러시아의 동해안 핵폐기물 투기사태에서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을 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환경운동은 오존층 파괴 등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맺어지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